

# 전주시, 대한민국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후 문화올림픽 유치전 돌입

전주시가 전주올림픽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핵심 체육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중심으로 문화·스포츠·관광·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IOC의 기조에 부합하는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며, 올해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의 핵심 동력을 결집했다.

일례로 지난 8월 출범한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체육·청년·복지·문화·경제 등 각계 대표 25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협의체로, 유치 활동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어 시는 지난 9월에 열린 범시민 문화축제와 범시민 서명운동, 올림픽 데이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의지



전주실내체육관 조감도.

와 도시 전체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대규모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진 싱가포르와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스포츠 선진도시를 직접 방문하며 올림픽 유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문화·음악·공연·K-컬처 등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도시답게 기존의 경기 중심 올림

픽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가 융합된 '문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 유산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림픽 유치의 실질적 기반이 될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추진 중

인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실내체육관과 전주육상경기장, 전주야구장, 국제수영장 등 핵심 공공 체육시설을 집적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세부적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현재 공정을 65%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 실내체육관도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전주 스포츠기차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면서 복합스포츠타운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시는 복합스포츠타운을 단순한 경기장 집적지가 아니라, 스포츠·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호남제일문 일대에 스포츠 문화광장과 스포츠 관광시설, 야간경관 콘텐츠 등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한옥마을을 중심의 관광 축을 도심 전역으로 확장하는 도시 구조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기반 인프라 조성과 올림픽 유치 준비를 병행하며 도시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청소년센터 연말 축제 개최

### 청소년 주도 전시회·시상식·송년파티 등 열려

전주청소년센터(센터장 김성철)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는 연말 축제인 '2025 J.U.A.(Jeonju Youth Awards)'를 개최했다. 청소년 주도로 기획된 이번 연말 축제는 △전시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료식 △시상식 및 송년파티 등으로 꾸며졌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등 센터 소속 청소년 약 70명이 참석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시상식과 공연을 함께했다.

여기에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각종 공연이 더해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이후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 간식 파티 등으로 모두가 웃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전주청소년센터는 이번 축제가 청소년 주도 활동의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철 전주청소년센터 센터장은 "2025 전주 유스 어워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문화 조성과 경험의 장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먼저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센터 1~2층에서는 새벽 동아리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만든 작품과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한 '순편지 전시'는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센터 3층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맑은누리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전달과 활동 영상 상영, 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으며, 청소년·감사·학부모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세대 간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나누는 포터 파티 형식으로 꾸며졌다.

끝으로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는 본 행사인 '전주 유스 어워드 시상식 및 송년파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동아리와

## 체계적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 전주정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재)전주정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허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

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원센터 수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선정으로 지정된 호 '제2025-10호'를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과 그간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진흥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존의 지원 사업을 넘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주역 인근에 '전북 메타버스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 왔으며,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마케팅 지원 등 지역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허전 전주정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은 전주시가 가상융합산업의 지역 거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첨단 영화제작 기술 '버추얼프로덕션' 활용 성과 공유

첨단 영화제작 기술인 '버추얼프로덕션'의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영화 축제가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정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흥원에서 첨단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는

'버추얼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쇼케이스 워크'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2025년 버추얼프로덕션 쇼케이스 워크'는 버추얼프로덕션 기반 콘텐츠 제작 생태계 확산과 지역 창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시와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영화 창작자,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 개막행사는 1부 버추얼프로덕션 기술 시연회와 2부 개인·팀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프리비즈 전시·상영회로 구성돼 첨단 영화·영상 제작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와 현장 중심 교육 성과를 종합적으로 선보였다.

먼저 1부 '버추얼프로덕션 기술시연회'는 국내 대표 VFX 기업인 (주)레스

트월드가 참여해 LED 월 기반 버추얼 스튜디오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트래킹 △가상환경 합성 등 버추얼 프로덕션 핵심 기술을 실제 제작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연했다.

이어진 2부 '전주 영화영상산업실습 역량 강화형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인 및 팀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는 진흥원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평가 '우수'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질병관리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및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조기 검진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과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결핵 예방 및 치료 등 결핵관리사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측·분석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날 열린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는 김혜경 전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주시 제1호 역학조사관(내년 3월 수료 예정)인 오현순 전문관이 역학조사관 훈연 우수 참가자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